

 <b>해양수산부</b>		<b>보   도   자   료</b>		 
		배   포   일	2021. 8. 9.(월) 총 6매(본문 2, 참고 4)	
담당 부서	소득복지과	담   당   자	·과장 이종호, 사무관 김덕영, 주무관 김선곤 ·☎ (044) 200-5470, 5471, 5468	
보   도   일   시		2021년 8월 1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9.(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어선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달라집니다

### - 장해어선원 재활비 지원 등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10일(화)부터 2021년 9월 23일(목)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 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 원, 장해·유족급여액의 2/3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어선원의 장해 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나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 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원 장해 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선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23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의견제출처>

-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전화 : 044-200-5468, 팩스 044-200-5479)
-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개정 이유

-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21.6.15 공포, 12.16.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위임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필요

## □ 주요 개정 사항

## 〈 시행령 〉

- (장해어선원 재활치료 세부기준) 장해어선원 요양 후 재활치료비용 지급 근거가 모법에 마련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세부 지원범위\* 등 규정
  - \* 진찰·검사비, 약제비, 수술을 제외한 처치, 통원치료 교통비 명목 등(산재보험과 동일)
- (장해등급 판정기준 준용) 장해등급 기준은 산재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나, 세부판정기준은 산재법령 준용 규정이 없어 미비점을 보완
- (압류금지 금액 전액 확대) 어선원보험금에 대한 수급권자 보호 차원에서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압류 금지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
  - \* (현행 압류금지) 요양급여 전액, 부상질병급여 월300만원, 장해·유족급여 등 2/3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과태료 부과처분 적용차수·누적차수 배제 조항 등 법제처·권익위 권고 모델을 참조하여 명확화
  - ※ 용어변경(상병→부상·질병) 사항은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 추진 중

## □ 향후 추진 일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 : '21. 8~9월
- 규제·법제처 심사 : '21.9~10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 : '21.11월

주요업무추진계획(해양수산부 2017. 12. 28)  
등록번호: 2017. 12. 28 - 2017. 12. 28

꿈이 있는 바다

# 온가족 어업인만 시행가능한 보험



**수협 정책보험** 문?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어업인을 가장 잘 아는 수협이 운영해  
예기치 못한 사고·피해로부터  
소중한 삶과 터전을 든든히 지켜주는  
어업인 밀착형 보험입니다.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이나 어선이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재해보상으로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 수산물과 시설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 **어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이나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 등의 안전재해를 보상합니다.

 해양수산부  수협



준법감사심의필(안) 제210046호(2021.02.09)  
유효기간 : 2021.02.09 ~ 2021.12.31

꿈이  
있는  
바다

어업인을 지키는 희망의 빛


# 어선원 및 어선보험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협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자  
입니다.

 해양수산부

 수협

어업인을 지키는 희망의 빛

# 어선원 및 어선보험



## ○ 어선 신규취득시 필수 확인사항

### 어선을 새로 건조하였나요?

- 3톤 이상 어선인 경우 어선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적항 관할 회원수협에 어선원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톤 미만 어선인 경우는 어선원 보험에 임의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어선보험은 등급에 관계없이 임의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입이 꼭 필요합니다.

### 어선을 매매(양도·양수)하셨나요?

- 매수인(양수인)은 14일 이내에 어선원보험 가입신고(3톤 미만은 임의가입)를 하여야 하며, 어선보험은 매수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매도인(양도인)은 미납된 보험료 정산·납입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개별할인·할증요율(조정계수)은 "어선단위"로 적용되므로, 어선을 매매할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사고발생사실 및 보험료 할증 여부를 가까운 수협에서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관계 신고의무 불이행·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사항

구분	보험금어액 징수	행정처분
보험가입신고 미이행	어선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여의 50% 징수 (단, 정례비 제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관계 변경신고 미이행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료 미납시	어선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여의 10% 징수 (단, 정례비 제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협에 문의하시면 진심을 담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